

국민의 안전을 비추다 성풍솔레드주식회사



스마트 횡단보도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1위 기업

성풍솔레드(주)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지를 둔 LED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전문기업이다. 2010년에 설립되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전시설물을 직접 연구개발 및 생산, 현장 시공까지 원스톱 책임경영을 하는 강소기업으로 현재 전국 10곳에 지사를 두고 있다. 성풍솔레드의 스마트 횡단보도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대한민국 최초로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기술평가를 통과하여 품질보증 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성풍솔레드 바닥 신호등은 스마트 시티 솔루션에 최적의 제품으로 전국 지자체 중 150곳 이상 현장에 설치됐다.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물에 바닥 신호등으로 등록된 업체 약 200여 개 중 명실상부 1등 기업이다.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IoT 융복합형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천기술 중심에는 단연 성풍솔레드가 있다.

성풍솔레드의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2010년형 표준 교통신호제어기의 교통신호 체계 기반으로 보행 신호등의 신호 상태를 녹색/녹색 점멸/적색으로 표출하는 신호 상태를 LED 보행신호등에 연동시켜 보행 신호정보를 바닥에 제공한다. 특히, 스마트폰을 보는 보행자들의 신호 준수율을 높이고 운전자의 횡단보도 시인성도 확보해주며,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무단횡단의 심리적 저지선 역할을 한다. 이밖에 교통약자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실버존 등 안전도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며 안전한 통행로와 보행로를 구축하고 있다.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정부기관 인증 받아

성풍솔레드의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2017년과 2019년에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등록됐으며, 기술평가, 성능평가 등을 통과해 조달청 혁신제품에 선정되었다. 이후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공단 등 약 20,000개소 이상 관리도로 및 지역에 제품이 설치되었으며, 무단횡단 90% 감소, 야간 사거리 시야 확보, 신호 준수율은 90%로 향상되는 성과를 증명해냈다. 특히, LED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지역의 사고율이 약 60% 이상 감소했으며, 평균 24,000건의 신호 위



반이 7,000건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검증받았다. 성풍솔레드는 LED 보행신호등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는 LED 안전 유도 블록,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 필요한 LED 경계등, LED 방향지시등도 개발해냈다. 성풍솔레드는 생산, 현장 시공, 유지 보수 경험과 노하우로 바닥 신호등도 현장시공, 유지보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의 안전을 비추다

성풍솔레드의 '국민의 안전을 비추다'라는 슬로건처럼 작은 아이디어가 보다 많은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함께 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포부다. 성풍솔레드는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기존의 제품에 ICT를 더하며 혁신을 이어나가며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만큼 회사의 수익은 주변과 지역사회에 나누고 있다. 성장해가는 성풍솔레드가 국민들의 길을 오래도록 안전하게 비추길 기대한다.

성풍솔레드 특징점

- ▶ 바닥신호등 업체 중 최초로 혁신제품 지정 후 우수조달 제품 지정
-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3년)
- ▶ 품질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자재, 부품관리, 고객불만처리 등 공신력 인증
- ▶ 방수제 충전의 일체형 구조로 완벽한 방수 방진 기능 및 자동화 시스템 도입
- ▶ 수직판형의 리플렉터(반사판) 적용으로 LED 빛이 운전자 측으로 조사되는 일 방지 (특허)
- ▶ 제품 설치에 필요한 지반보호대의 시공 방법 특허 보유
- ▶ 전국 8개 지사 설립으로 전국 AS망 구축으로 즉각 유지 보수 관리 용이
- ▶ 제어함에서 관제센터까지 송/수신 가능한 기능 추가된 제어함 개발 완료